

BASF-Shell, PE사업 연합

Phillips · 대림산업 연결 경쟁력 강화 ... Hoechst와는 PP 연합

BASF가 Shell의 50% 자회사 Montell과 합작으로 PE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Phillips, 대림산업과의 세계적인 연합을 추진하는 한편, Hoechst와는 PP사업 부문에서 합작, 폴리올레핀 사업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BASF는 Shell과 Montedison의 50대50 합작기업 Montell과 합작기업을 설립해 PE사업 통폐합키로 합의했는데, Montell과 BASF의 PE사업 연합은 곧바로 Shell과 BASF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Phillips, 한국의 대림산업을 포함하는 세계적 규모의 PE연합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3대 PE · PP 생산기업 현황

(단위: 100만MT/y)			
회사명	생산능력	회사명	생산능력
Borealis	1.6	Montell	1.5
BASF/Shell	1.4	BASF/Hoechst	1.4
Polimeri Europa	1.4	Borealis	0.7

* 유럽 생산능력 기준

BASF와 Montell의 PE사업현황

(단위: 1000MT/y)				
구 분	LOCATION	생산제품	생산능력	기술 선
BASF	Wesseling(Germany)	LDPE	430	BASF
		HDPE	350	Phillips, BASF
		LLDPE	70	BASF
Montell	Ludwigshafen(Germany)	HDPE	10	BASF
	Carrington(U.K.)	LDPE	170	BASF
		LDPE	110	BASF
	Berre(France)	LDPE	110	BASF
		LLDPE	200	Montell
	Fos(France)	LDPE	100	ICI

* LDPE 생산능력 22만톤 중 50%는 NDG 소유

BASF의 PE 및 PP연합 추진현황

(단위: MT/y)			
Polyethylene		Polypropylene	
BASF	Shell	BASF	Hoechst
	-ROW-	Wilton(영국)	Knapsack(독일)
	Berre(프랑스)	Rozenburg(네덜란드)	Lillebonne(프랑스)
	Fos(프랑스)	Tarragona(스페인)	Tarragona(네덜란드)
	NDG(프랑스)	ROW*	Tarragona**
	Carrington(영국)		
Ludwigshafen			
BASF	15 000	BASF	730 000
Montell	540 000	Hoechst	670 000
ROW	900 000		
합계	1 400 000	합계	1 400 000

주) ① ROW는 Shell과 BASF의 합작기업으로 PE, PP, 에폭시수지, 고무제품 생산

② NDG는 Montell과 Exxon Chemical의 합작기업

* BASF/Shell 합작으로 BASF/Hoechst간의PP(24만톤) 합작 추진

** 50%는 Repsol 소유

합작기업의 경영권은 BASF가 확보한 상태로 Rheinnische Olefinwerke 등 BASF의 91만5000톤(95년 매출7억7650만달러)을 포함해 PE 총생산능력이 140만톤(1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BASF의 PE 생산능력은 90만톤으로 대부분을 Wesseling에서 생산하고 있다. Montell의 유럽지역 LDPE 총생산능력은 54만톤이다. Montell과 BASF는 합작으로 프랑스 Berre에 20만톤 규모의 Spherilene 프로세스 PE 플랜트를 건설, 97~98년

가동하고 차후 생산능력을 25만톤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이번 연합이 성사되면, PE 생산능력이 140만톤에 달하게 돼 Borealis에 이어 유럽 2번째 PE 생산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Borealis는 Neste와 Statoil의 합작기업으로 PE 생산능력이 160만톤에 달하며, 덴마크 Copenhagen에 본부를 두고 있다.

Shell과 BASF는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 사업을 합작, Rheinnische Olefinwerke를 설립한 바 있는데 ROW는 본부가 독일 Wesseling에 있으며, BASF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Shell과 BASF는 최근에도 Propylene Oxide/Styrene Monomer 사업부문에서 합작, Basell을 설립해 네덜란드 Moerdijk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Montell과 BASF, Phillips간의 세계적 규모의 PE사업 합작은 BASF의 고압기술 및 Metallocene 촉매노하우, Montell의 가스계 Spherilene기술, Phillips의 Chromium 프로세스의 연합을 의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hillips는 세계적으로 파이프 및 브로우몰딩 그레이드 HDPE를 생산하는 리딩기업으로, 대림산업 및 ROW 등이 이 프로세스를 채용하고 있다. Montell의 Spherilene PE 프로세스도 PE 생산기술의 표준이 되고 있다.

BASF는 LLDPE 생산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현재는 독일 Wesseling에 연산 10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나, LLDPE는 생산치 않고 HDPE를 생산하고 있다.

BASF는 Shell과 PE사업을 연합하는 것은 물론, PP사업 부문에서는 Hoechst와 합작기로 합의했다.

BASF는 ROW의 PP 생산능력이 73만톤(95년 매출 5억1800만달러), Hoechst는 67만톤(5억8250만달러)으로 총생산능력이 140만톤에 달해 세계 2위의 PP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1위는 Montello로 PP 총생산능력이 150만톤, 95년 매출이 1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BASF-Hoechst의 합작에 따라 BASF의 가스계 PP기술 및 Hoechst의 Metallocene PP 기술이 결합,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Hoechst는 PE부문 합작파트너도 물색중인데, 현재 BP Chemicals와 연합방안을 논의중으로 97년초 확정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1996/11/25〉